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엄 경 애(인하대학교 석사) · 양 성 은(인하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고학력 여성들이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퇴직 이후 자녀 양육, 부부관계,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준거적 선택방법 중 전형적 사례선택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준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30대 전업주부 여성으로, 과거 직장 경험이 있고 만 2세 이상의 취학전 막내자녀가 있는 여성이었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총 29명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34세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개별심층면접으로 실시되었고, 연구참여자 개인별 평균면접시간은 1시간 57분이었다. 면접의 내용은 과거 직장경험과 퇴직하게 된 배경, 퇴직 시 주변인들의 반응, 자녀양육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취업모에 대한 태도, 재취업에 대한 계획 등이었다. 자료분석은 Giorgi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의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절차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동료집단의 조언과 지지, 예외적 사례분석, 반성적 일지쓰기, 감사자료 남기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경력단절 여성들은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진다. 그들의 경제력과 자유로움에 부러움을 느끼는 반면, 자녀와 가족에게 소홀한 것을 보며 그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한다. 특히 맞벌이가족 자녀들에 대해 “불쌍하고 문제가 많다”는 등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인식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경력단절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과 육아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자녀가 좀 더 성장한 후 일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직장에 복귀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 나이가 들게 된다고 걱정하며 딜레마에 빠진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교환이론적 입장에서 보상과 비용을 계산한다. 본인이 고학력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일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비용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경력단절은 장기화된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경력에 대해 막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 대학 시절부터 직업적 목표나 성취에 대한 구체적 계획보다는 막연하게 커리어우먼을 꿈꿔왔으며, 현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막연하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력단절과 재취업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과거 직장경험, 직업에 대한 기대, 양육신념 등 고학력 여성의 개인적 요인, 자녀의 연령, 남편과 부모님들의 육아와 직업에 대한 태도, 육아를 대행해줄 조력자의 여부 등 가족내적 요인, 그리고 여성의 열악한 직업환경과 성 차별적인 조직문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다양하게 맞물려 상호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피상적 양적접근에서 벗어나 자녀양육을 포함한 이들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 고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